

전남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 쉬워진다

법무부, 고용허가제 현황 제공
전남도, 정부 지속 건의 반영돼
장기체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
“안정 고용·지역사회 정착 노력”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외국인 현황 정보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으나 정착 전환 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어려웠다.

전남도는 제공된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

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으로, 시군별 배정 없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로 추천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이번달 개소하는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매칭 지원,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통

합콜센터 운영,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의 전남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비자 전환 필요 기간 단축, 광역추천 가점 상향, 초청 배우자의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 허용을 건의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8000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남도는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전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다.

신청은 오는 9월27일까지 전남인재평

오지현 기자

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 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이자분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 공공기관 다회용 컵 살균세척기 설치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청 등 5개 기관에 컵 내장형 세척기,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등 다회용 컵 살균세척기 11대를 추가 설치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회용 컵 살균세척기가 설치된 5개 기관은 광주시청, 광주시인재교육원, 역사민속박물관(마한유적체험관 포함),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광주소방학교 등이다.

광주시는 기존에 설치된 컵 내장형 세척기 8대에서 11대를 추가 설치해 총 19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인 컵 이용활성화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청 행복회의실 앞 등 총 3대와 역사민속박물관·마한유적체험관 1층에 각 1대의 컵 내장형 세척기를 설치했다. 시청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해 일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인재교육원,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광주소방학교 등 3개 기관에 각 2대씩 총 6대의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 공직자들의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 방침이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 청사 내 회의·행사 등에 다회용기 대여, 일회용품 없는 축제·행사 시범 운영, 시청 1층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인카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자원 낭비, 다회용 컵 위생관리 등 인식개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캠페인, 교육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귀어학교 운영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귀어 입문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11기 전남 귀어학교 입교식을 19일 개최하고 현장 실습과 유동·가공 과정을 강화해 10월11일까지 8주간 무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11기 전남 귀어학교는 어선어업(13명)과 양식업(8명)에 관심 있는 예비 귀어인으로 구성됐으며, 거주지별로는 서울·경기·경남 등 11명(52%), 전남 6명(29%), 광주 4명(19%)이다.

1~2주차에 귀어 정책과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보, 현장 견학이 이뤄지고, 3~6주차엔 어가 체류형 현장 실습, 7~8주차엔 창업컨설팅, 금융정책, 융화프로그램 등이 무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업 실무 능력과 어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실

습 기간을 당초 2주에서 4주로 연장 운영한다. 다양한 어촌의 창업분야 정보 제공을 위해 유동·가공과정도 1주 신설했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전남 귀어학교는 귀어취준인이나 희망자 대상으로 귀어정책, 어업이론과 실습, 창업 컨설팅 등을 진행,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또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1주간 보수와정을 통해 현장 체류형 실습 교육 기회를 추가해 현장에서 활용할 실무능력을 한층 높여 귀어인이 전남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도울 예정이다.

실제 강진에 있는 전남 귀어학교는 올 상반기까지 10기를 운영해 16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71명(44%)이 어촌에 정착,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착률을 자랑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건강증진실 라운딩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9일 동구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건강증진실 조성에 따른 현장을 방문해 운동기구 및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있다.광주 동구 제공

전남도, 최종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추진

123명 대상 66억6천만원 투입
야간돌봄 등 3가지 유형 서비스
시설 개보수·제공기관 발굴 추진

전남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최종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22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현재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은 1만4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종증 발달장애

인은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이 돌봐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전남도는 총 6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필요도에 따라 총 123명에게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개별 1대1 서비스(20명) △낮 활동 서비스인 주간 개별 1대1 서비스(28명) △주간 그룹형 1대1 서비스(75명),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8월 첫 주 기준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자 38명 중 우선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7월 2차례 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개최, 24시간 개별 4명, 주간 개별 4명, 주간 그룹형 6명, 총 14명의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낮 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동·서부권 각 1개소를 지정, 이달 중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 개보수 중이다.

낮 활동 서비스인 주간 개별과 그룹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별로 자체 공모 중이며, 일부 시군은 제공기관을 모두 지정해 시설 개보수 및 종사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대회 연다

광주시는 오는 9월 5일까지 ‘2024 광주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전국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에 모여 넘치는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

참가 자격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

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노래, 춤, 퍼포먼스 등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각자 자신있는 장기를 뽐내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구글폼 누리집(<https://forms.gle/gtspXehEuphuYbV9A>)이나 포스터에 나온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오는 9월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선심사를 거쳐 13일 본선 진출 10개팀을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10개팀은 28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당일 5·18민주광장 무대에서 경연을 펼친다.

대상을 차지한 1팀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상금 70만원, 최우수상 1팀은 광주광역시시장상과 상금 40만원, 우수상 1팀은 광주광역시시장상과 상금 30만원, 나머지 7팀에게는 참가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

노병하 기자